

과기정통부 x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자 위한 기술 공유의 장 공동 개최

- 오는 4월 21일~24일, 서울에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개발자 데이'(「NVIDIA Nemotron Developer Days Seoul」)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NVIDIA, 대표 젠슨 황)와 협력하여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개발자 데이'(「NVIDIA Nemotron Developer Days Seoul」)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모델인 '네모트론(Nemotron)'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이 세계적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엔비디아 연구진들이 직접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응한 합성 데이터 생성 전략, ▲모델 최적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법(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시설(인프라)부터 데이터, 모델, 학습 기법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인공지능 기술(풀스택 AI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세계적 기반 시설(글로벌 인프라) 기업 간의 가교 역할로서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형 독자 기초 모델(한국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참여 기업들의 참가자(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엘리스 그룹,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하여 국내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과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일간 진행되는 끝장 개발대회(해커톤)도 주목된다. 참가자들은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며,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기반 문제해결 ▲산업 특화 모델 개발 ▲고품질

데이터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펼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과 함께 실전형 인공지능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번 개발자의 날(개발자 데이)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엔비디아와 약속한 세계적 기술 공유와 인재 양성 협력(양해각서, MoU)의 일환으로서, 우리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기술 흐름을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개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전략팀	책임자	팀장	상은혜 (044-202-6280)
		담당자	사무관	권화연 (044-202-628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책브리핑

